"특파원보다 생생" '지구인라이브' 글로벌 1인 방송 개국

콘텐츠에 집중 · 이원중계 등 차별화

특파원보다 생생한 소식이 안방 극장에 찾아온다.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닌 콘텐츠에 집중하고, 이원중계 등을 통해 살아 있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차별화 각오를 밝혔다.

27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채널A '지구인라이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박준형 · 이상민 · 하하 · 김종민 · 안현모 · 김경훈 PD가 참석했다.

'지구인라이브'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지구 크리에이터들과 화상 연결 또는 직접 만나 그들이 촬영한 콘텐츠 영상을 보며 이야기 나눠보는 신개념 토크쇼다.

이상민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철학과 인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고 하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원중계로 한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다. 지구인이 뭉쳐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라고 프로그램의 장점을 밝혔다. 안현모는 "특파원을 통해 듣는 것보다 유튜버를 통해 듣는 각국 문화나 소식이 훨씬 잘 들리고 재밌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게 유행인지 보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MC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하는 "이상민은 수많은 성공과 한 번의 실패로 인해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 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다. 하지만 깊진 않다. 베일에 가려진 박준형은 같이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역사적인 것과 미술, 예술 등 깊이가 깊다. 걸어 다니는 검색창이라고 했다. 제 역할은 이 두 분 사이에서 잘 모르는, 배우는 느낌의 연결고리다. 김종민과 저는 많이 몰라서 섭외된 것 같다"고 설명해 웃음을 줬다. 안현모는 여기에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최근 JTBC '랜선라이프' KBS 2TV '덕화TV' 등 1인 방송과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인라이브'는 글로벌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만난다는 점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연출을 맡은 김경훈 PD는 "크리에이터 자체를 스타로 보고 그들의 삶을 보는 예능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재야의 고수들, 일반인 전문가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분을 방송에 소개해주고 싶고, 또 이들이 가진 콘텐츠나 내용이 방송에 나와도 유용한 팁이나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여행, 관광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 생활방식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모는 "새롭게 발굴한 크리에이터가 많다. 집에서 혼자 본다면 모르고 지나칠 만한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한다. 유튜버들이 비슷한 주제로 모여서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연대인 것 같다. 유튜버들에게는 경쟁 시스템이기도 하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유튜버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혼자 제작하는 것보다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구인라이브'는 29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한다.

'국민 여러분', 코믹 · 예측불가 · 스릴만점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극본 한정훈, 연출 김정현, 제작 몬스터유니온, 원콘텐츠)은 얼떨결에 경찰과 결혼한 사기꾼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오는 4월 1일 첫 방송을 앞두고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을 주목해야 하는 꿀잼 키워드 세 가지를 짚어봤다.

● 유쾌코믹 범죄

'국민 여러분!'은 사기를 가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경찰에 잡혀본 적 없는 베테랑 사기꾼 양정국의 이야기다. 미소 한 번으로 상대를 사로잡는 호감 가는 외모와 비상한 머리, 그리고 번뜩이는 재치를 빛내며 속이고자 하는 인물을 뒷목 잡게 하는 화려한 스킬을 뽐낼 예정. 또한, 독특한 남성미를 가진 카사노바 찰스(양동근)와 홍일점이자 연기의 달인 황승이(이주명)라는 매력적인 팀원들과 작전을 꾸미고 실행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로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다.

● 예측불가 선거

정치 드라마가 어렵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국민 여러분!'은 높은 진입장벽과 진중하고 계몽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탈피한 스토리를 지향한다. 사기는 프로지만 정치와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정국이 '살기 위해' 뛰어든 국회의원 출마. 사기꾼이기에 진중할 리 없고, 알지 못하기에 누굴 가르칠 처지도 못 되는 정국이 시청자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함께 분노하고 함께 질주하는 예측불가 경선 레이스가 보여줄 통쾌한 카타르시스는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스릴만점 로맨스

'국민 여러분!'은 로맨스도 범상치 않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 불타는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한 부부 양정국과 김미영(이유영)이 알고 보니 사기꾼과 경찰이었기 때문. 마주 보고 웃고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마저도 속이고 있기에 스릴만점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매 순간 손에 땀을 쥐는 설렘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사전 공개된 영상만 봐도 통통 튀는 리듬감 넘치는 케미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양정국과 김미영의 수상한 로맨스의 향방에 호기심이 높아진다.

4월 1일 KBS 2TV 첫 방송.

몬스타엑스, 스티브 아오키 콜라보곡 'Play It Cool' 영어버전 공개

그룹 몬스타엑스가 'Play It Cool'(플레이 잇 쿨) 영어 버전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26일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03.27.19 2 PM PST / 5 PM EST / 6 AM KST (03.28) @OfficialMonstaX #playitcoolvideo"라는 글과 함께 티저 영상을 기습 공개했으며, 이어 몬스타엑스 역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티저 영상을 게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몬스타엑스와 스티브 아오키가 함께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몬스타엑스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띄는 배경에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가득 자아낸다.

또한, 섹시한 블랙 슈트를 차려입고 파워풀하면서도 강렬한 군무도 선보이며 다채로운 매력을 더한다. 더불어 광활한 거리에 스티브 아오키도 등장, 유쾌하면서도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본 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Spotify)와 아이튠즈(iTunes) 등을 통해 발표된 'Play It Cool'의 영어 버전은 지난달 몬스타엑스가 발표했던 앨범 수록곡의 영어 버전으로 새롭게 발표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곡마다 빌보드를 강타하는 세계적 아티스트 스티브 아오키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특히 이 노래는 청량한 EDM 사운드와 시원하고 매력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폭넓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그룹답게 발매 직후부터 전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몬스타엑스와 스티브 아오키가 'Play It Cool' 영어 버전 뮤직비디오를 통해 어떤 색다른 매력과 즐거운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음악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몬스타엑스는 최근 발표한 앨범 'TAKE.2 WE ARE HERE'의 타이틀곡 'Alligator'(엘리게이터)로 국내에서는 음악방송 4관왕과 월간 앨범 차트 1위를, 해외에서는 전세계 아이튠즈 차트 1위와 각종 유명 언론들의 집중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전세계 18개 도시의 월드투어 'WE ARE HERE'와 미국 유명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라스베이거스 2019' 참석 등 다양한 해외 활동을 예고하며 뛰어난 성과도 이루고 있다.

한편, 몬스타엑스와 스티브 아오키의 콜라보곡 'Play It Cool' 영어 버전의 뮤직비디오는 한국 시각으로 28일 오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4월과 6월 시즌제로 컴백

지난해 11월 방송되었던 MBC 파일럿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시즌제로 돌아온다.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가짜 뉴스들 속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파일럿 방송 이후 정규 편성요청이 쏟아졌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에 정식 기사처럼 올라와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 뉴스의 진실을 '서처 K'인 배우 김지훈이 파헤치는 과정을 보여주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가짜뉴스라는 주제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갔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지난 파일럿 방송에선 '부동산 집값, 평당 1억'의 진실, '일본의 혐한 세력들과 일베 세력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짜 뉴스', '조덕제 사건을 둘러싼 가짜 뉴스의 진실' 등을 흥미진진하게 추적해나간 바 있다.

이번에 시즌제로 돌아올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지난 수개월 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속의 가짜 뉴스를 추적할 예정이다.

'서처 K'로 다시 만나게 될 배우 김지훈은 "요즘 트렌드에 어울리는 참신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정규편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며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라는 역할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친근하고 편안하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며 진실을 전하는 진행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4월 8일 방송을 시작으로 29일까지 4주간 월요일 오후 11시 10분에 연속 방송된다.

그리고 6주 후인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4주 간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다시 방송될 예정이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음력 2월 22일)

▶쥐띠 부부간에도 평등한 위치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만이 매사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조건을 걸고 대한다면 진실한 마음을 받을 수 없음을 알라. ㅇ, ㅅ, 표성씨 인내하며 문제점을 풀어야 할 때.

▶소띠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던 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라. 6, 8, 11월생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이 요망된다. 돼지, 범 띠와 함께함이 좋을 듯.

▶호랑이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만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임을 알라. 1, 5, 8월생 하는 일에 불만을 갖지 말고 충실하라. 뿌린 씨앗 거두어 들일 날만 남았구나.

▶토끼띠 자신의 마음만 같은 줄 알고 남의 사정을 봐주려고 보증을 선다거나 금전거래를 한다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듯. ㄱ, ㅅ, ㅇ 성씨 사랑은 조건 없이 하라. 권태와 싫증이 날 때이니 신경 씀이 좋을 듯.

▶용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항상 다른 것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다. ㄱ, ㅁ, ㅎ 성씨 남녀 관계로 구설이 들리니 항상 언행에 조심하라.

▶뱀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침착해야 만이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법이다. 자기 일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또 피하려고도 하지 마라. 지혜롭게 인내하며 문제점을 풀어라. 1, 5, 9월생 자신감과 여유가 요구된다.

▶말띠 살다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쟁도 벌일 수 있는 법. 고집만 주장 말고 서로 이해하는 미덕을 길러라.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때.

▶양띠 성급한 행동보다는 현재대로 충실히 관리해 나감이 좋겠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수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 ㄱ, ㅂ, ㅇ성씨 뜬구름 속에서 벗어나 가정을 지켜라. 한 순간 실수로 후회를 벗어나기 힘들다.

▶원숭이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모든 일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침착하게 처신하라. 세상일이 생각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를 기다림이 좋을 듯. ㅅ, ㅇ, ㅊ 성씨 겸손한 태도가 큰 행운을 부를 수 있다.

▶닭띠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에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한탄만 하지마라. 세상사 내 뜻대로만 된다면 불행이란 있을 수 없는게 아닌가. ㄱ, ㅈ, ㅎ성씨 떠날 사람 생각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 찬사 들리겠다.

▶개띠 자녀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드러내라. 나만의 사랑은 정말 힘든 일.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 치는 맛이 있는데 대답 없는 사랑으로 애만 태우는 격. 서, 북쪽 사람과 의논함이 좋을 듯.

▶돼지띠 가정을 권위의식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화복보다는 침묵뿐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만 말고 자신이 마음 속 깊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라. 4, 8, 10월생 자존심 버리고 대화하라.